

■ 주요 내용 ■

부문별 전망 : 금융 부분

-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우위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금리) 하반기 이후 비용측면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커 보이거나 정부의 금리 안정의지와 채권시장의 신뢰성 회복 정도에 따라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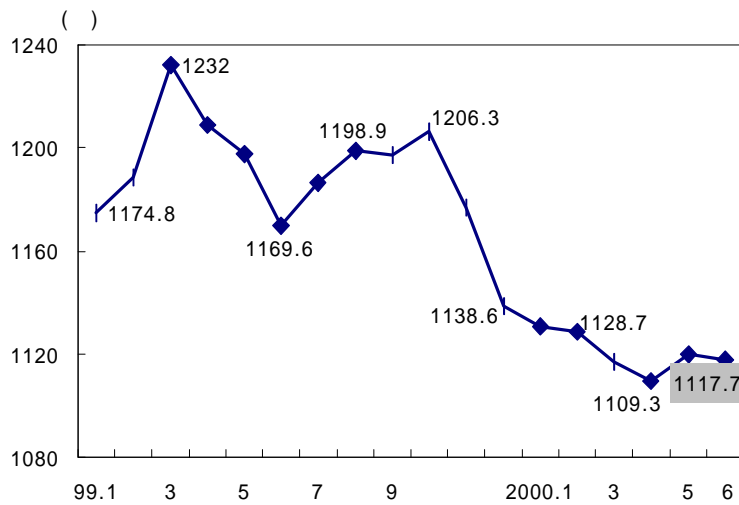
Ⅲ. 부문별 전망: 금융 부문

1. 원/달러 환율

○ 상반기 동향 및 평가

- 2000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5월 이후 금융시장 불안감 등으로 달러 보유 심리가 증가하여 소폭 상승중임
 - 6월 중순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80억 달러 이상 순유입된 것이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월까지 1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우위 현상이 많이 약화된 모습을 나타냄

< 원/달러 환율 추이 >



주: 6월은 6월 19일까지 평균치임

○ 하반기 및 2001년 전망

- (외환시장 수급) 2000년 하반기 외환 수급은 상반기보다 외국인 직·간접 투자가 약간 줄어드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가 상반기보다 증가함으로써 40억 달러 내외의 달러 공급 우위가 전망됨

- 경상수지가 하반기중 40~5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우 계열사 자산 매각 등을 중심으로 50억 달러 이상이 순수입될 것임
- 외국인 포트폴리오(주식 및 채권) 투자는 이미 4월까지 90억 달러 이상이 순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는 유입 속도가 조금 둔화되어 30억 달러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2000년 하반기 외환수급 전망 >

외환 공급	외환 수요
- 경상수지 흑자: 55억 달러	- 외채 원금 상환분: 53억 달러
- 외국인 직접 투자: 50억 달러	- 이자 지급분: 장기채 25억 달러, 단기채 14억 달러
-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 30억 달러	- IMF 지원 자금 상환액: 5억 달러
- 금융기관 장기 차입: 30억 달러	- 외평채 원금 및 이자 상환: 25억 달러
총 165억 달러	총 122억 달러

- (하반기 전망)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우위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간접 투자 자금의 유입 규모와 속도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을 결정할 것임
 - 따라서 2000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연말쯤에는 1,08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전망) 외환시장의 환율 결정 요인으로 자본 유출입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고, 자본수지의 흑자 추세 지속이 소폭의 원화 강세를 유도할 것임
 - 2001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서 달러 공급이 2000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와 채권 투자 자금의 유입 증가로 달러 공급 우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원화 환율의 소폭 하락이 전망됨

< 원/달러 환율 전망 >

(단위: 기간 평균,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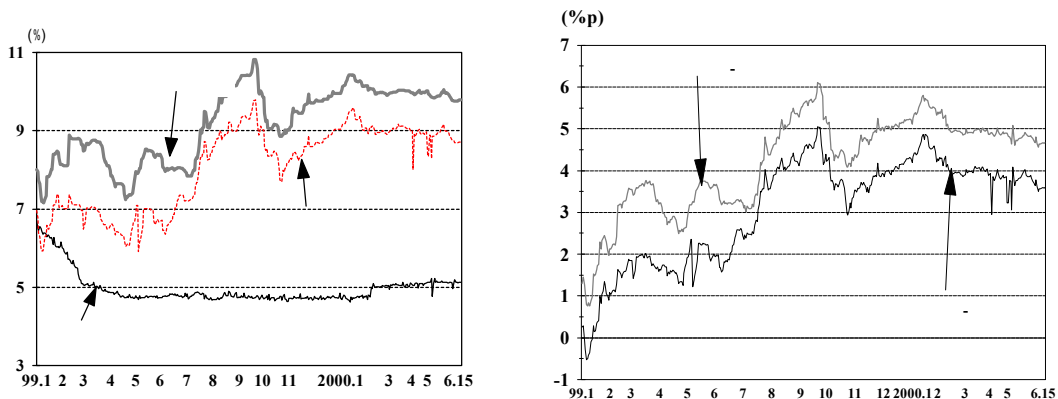
	1999년	2000년				2001년
		1/4분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원/달러 환율	1,189	1,125	1,120	1,100	1,110	1,070

2. 금리

○ 상반기 동향 및 평가

-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 불신과 물가 불안 우려 등으로 한때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10%포인트대로 상승했지만,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로 다시 한 자리 수로 하락
 - 투신권 구조조정 및 은행권 합병 등에 관한 정부 시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됨
 -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투자자금이 주로 단기 금융시장 시장으로만 몰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됨
 -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통한 통화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 금리의 인상 압력이 상존했으나 금융구조조정 비용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확고한 저금리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지표금리의 상승은 억제됨
- 기업 신용등급 차별화에 따른 자금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
 -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9% 후반 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신용등급 A+이상의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을 나타낼 뿐 일반 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 20% 대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도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간 자금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최근 시중 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 추이 >



○ 하반기 및 2001년 전망

- 하반기 이후 비용측면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구조조정
 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커 보이거나 정부의 금리안정의지와 채
 권시장의 신뢰성 회복 정도에 따라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올 하반기부터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측면에
 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여 명목금리의 인상이 예상됨
- 경상수지 흑자폭이 둔화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
 에 따라 환율방어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임. 그러나 금리 안정과 환
 율 하락세 억제책은 외평채 발행과 해외자금의 이탈 가능성으로 인해 최적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정부가 정책 주안점을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두는 만큼 수입 수요 억제를 위한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임
-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면 기존 장부가로 평가되던 펀드들의 운용수익
 률이 하락하고 이로 인한 환매와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채권매수기반
 이 축소됨에 따라 당분간 금리의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금융기관 그룹별 회사채 및 CP 보유한도제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매
 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고율과세 회피 수단으로 채권매수세가 늘어날 전망
- 그러나 채권매수기반 확대 조치들이 당장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어 보여 적어
 도 올 하반기까지는 금리상승 요인이 지배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저
 금리 정책 고수에 따라 금리 상승폭이 소폭에 그칠 전망

< 금리 전망 >

(평균 기준, %)

	2000년						2001년
	1/4분기	4월	5월	상반기	하반기	연간	
회사채 수익률	10.40	9.97	9.91	10.0	10.2	10.1	10.0

주: 신용등급 A+의 우량무보증채권(3년 만기) 기준